

건축이 그림다

Longing for Architecture

베를린, 파리, 바이마르, 마르세유, 모스크바 등과 같은 도시에 관하여 글을 많이 쓴 발터 벤야민은 “모든 도시는 아름답다”고 했다. 한동안 건축하는 이웃들을 만나면 마주보고 앉아, ‘우리가 사는 도시는 아름다운가’를 물었다. 도시를 말하지만, 그 안에는 건축과 공간 그리고 도시민들과 그들의 삶의 흔적이 들어있었다. 사유로 나누는 건축과 도시 풍경이야기는 전공 다른 이들의 경계를 잇는 다리 역할도 해주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과 철학을 말하는 것이었지만, 건축하는 욕망, 건축과 자본, 건축과 춤, 건축과 영화, 건축과 연극, 건축과 글쓰기, 건축과 정치 등으로 이어지는 나뭇가지처럼 흩어지고, 이어지고, 나아가고, 모아지고 있었다. 건축 주변에는 건축하는 전문가들과 더불어 별별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다. 하다못해 건축과 락 혹은 포크 음악을 견주기도 했었다. 그렇게 골목과 시장, 거리와 주택, 산과 강이 있는 도시를 내용으로 집과 길과 사람을 ‘노래하던’ 나날들이 있었다. 전공이 서로 다른 우리들은 건축의 모나드와 같았고, 건축은 모든 이들을 다 아우르는 아키(archi)의 예술이었다. 그 시절, 건축은 사유의 길라잡이였다. 건축은 전공을 초월하는 삶과 사유의 집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 시절 나는 건축으로 속 깊은 사람들과 많이 만났고, 건축이 지닌 시간의 주름, 삶의 흔적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건축의 바닥처럼 단단해질 수 있었다.

얼마 전부터 그랬다. 정확하게 몇 해 전부터 그랬다. 건축하는 이웃들이 하나둘씩 사라져 보이지 않았고, 만나는 자리도 줄어들었다. 사는 동네에, 도시 중심에 이상한, 거대한 건축들이 날로 들어서고 있었지만, 건축하는 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연극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예술이 아니지 않겠는가. 건축은 더더욱 사람이 집을 짓는 일이되, 사람과의 관계를 짓는 노릇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건축이 황무지가 아니라, 건축하는 이들과의 만남이 거의 묵정발처럼 되었다. 참 서글프기 그지없다. 그로부터 건축과 건축에 대하여 말하고 노래하고 노는 것이 날로 사무친다. 그 많은 건축 동무들은 다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 유행이 지배하는 오늘날의 건축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겠다. 삶도 저절로 실내화되기만 한다. 건축과 이별한 것도 아닌데 나는 건축이 그림다. 이는 모두 건축과의 만남이 부재한 탓이다. 하기 싫은 자백이지만, 건축만 그러한 것은 아닐 것이다. 연극을 비롯한 공연예술도 많이 달라졌고, 가벼워졌다. 요즘 연극들은 맨 거짓투성이다. 극장에 가는 일도 즐겁지 않다. 극장에만 연극이 있는 것이 아닐 터이므로, 나는 서재에서 책으로 연극을 읽고, 자연에서 극장의 연극보다 더 훌륭한 풍경을 만나려고 한다. 그러나 어디서 건축을 만날 수 있겠는가?

감히 말하자면, 건축은 지금 부재하는 것 같다. 모조리 부수고 다시 지으려는 탓이다. 오래된 건물들이 속절없이 사라진다. 이 파괴에 앞장 서는 이들이 누군지는 분명하다. 시간을 견뎌내지 못하는 불안정한 정신은 발전이란 이름으로 무조건 부순다. 경제성장의 모델인 아파트가 지어진 지 30년이 되면 부수고 재건축할 수 있는 한국의 현대 건축이 서구 건축의 이데올로기와 어긋난다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상식이다. 부수는 자리에서 삶과 그 기억은 부초처럼 떠돌 수밖에 없다. 인권의 평등처럼, 건축도 분배와 평등의 원칙을 지니고 있을 것이다. 건축이 순명한 지리학과 인문학을 포기할 때, 우리들의 살림은 지속될 수 없을 것이다. 우리의 건축이 시간을 담아 박물관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 무조건 새로 짓는 것이 능사인 오늘날의 건축환경은 삶을 유린하기 마련이다. 가난한 이들이 도시 밖으로 쫓겨나고, 도시 중심을 잘 사는 이들이 차지하는 것도 그런 맥락이다. 수도 서울에 오래된 건축이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건축이 이제부터는 시대에 저항하면 좋겠다. 건축이야말로 삶이 근간이며, 도시의 풍경이 아니겠는가!

이제 그만 부수자. ■



안치운 / Ahn, Chi-woon
호서대학교 연극학과 교수

- 중앙대 연극학과, 프랑스 국립 뉴벨 소르본 대학 졸업, 연극학 박사
- 저서 <연극제도와 연극 읽기>, <연극, 반연극, 비연극> / 산문집 <길과 집과 사람 사이>, <옛길>, <시냇물에 책이 있다>